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에 대해 공부를 하십시오.

로마서 3 :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3 :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 : 18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 1. 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요?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저를 믿는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요?

저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냐? 하는 인격과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는 사역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즉 십자가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확고히 가진 분들은 많지만, 이 믿음을 예수님의 인격 즉 신성과 인성에 connection 을 못하는 분은 많습니다. 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 1.1. 먼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공부를 하십시오.

예수님의 인성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시면서 한번도 죄를 진적이 없으십니다. 보통 사람은 몰마시듯 죄를 짓고 살지만 예수님은 한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율법에 대해

온전한 순종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에 대해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죄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에 대해 온전한 순종을 하시면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죄없이 태어나서, 한번도 율법을 범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속죄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달려 있어야 할 자리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죄사함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1 : 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 1.2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공부를 하십시오.

부활로 입증된 예수님의 신성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하나도 경감없이 변형없이 분리됨이 없이 그대로 가지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하나도 경감없이 변형없이 분리됨이 없이 그대로 가지신 분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독생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위격적으로는 아들이지만, 본체적으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입증할 뿐 아니라 성령은 오셔서 그가 의로우신 분임을 입증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요한복음 16 :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यो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신성으로 부활하셨지만, 우리 쪽에서 보면 그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함입니다.

로마서 4 : 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임을 믿을 때 아들이 가지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 : 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공부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죄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용서를 받고 그의 의가 전가되어 의롭게 된 기반위에서, 독생자인 아들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로마서 3 :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공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요한복음 3 :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 : 18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 2. 다음에는 독생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독생자는 *monogenes vios* 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영어로는 the one and only son, or the begotten son 입니다. Monogenes 는 Mono + genes 가 합성된 말인데, Mono 는 only 의 뜻이고, genes 는 generate 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monogenes 는 ‘홀로 발생한’ 의 뜻이고 vios 는 아들라는 뜻으로 우리 말로는 독자 혹은 독생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두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monogenes vios 가 보통 사람들에게 쓰일 때에는 외아들, 독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적용할 때는, The Son was eternally generated by God the Father 로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발생된 아들’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통신학입니다.

이 두 가지 용례를 성경에서 찾아 보십시오.

먼저 외아들, 독자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7 : 12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구절에서 독자는 영어로는 the only son 인데 헬라어로는 monogenes vios 입니다. 이런 예들은 별로 문제가 없지만, 다음에 사용된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히브리서 11 : 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By faith Abraham, when he was tried, offered up Isaac: and he that had received the promises offered up his only begotten son, Hebrews 11:17 (KJV)

여기서 독생자는 독자의 의미이지 신학적 의미에서 독생자는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이 신학적 의미에서 독생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명칭에 대한 공부입니다.

요한복음 1 :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And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ohn 1:14 )

이 구절에서 사용된 것이 monogenes vios 입니다. 영어로는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입니다.

여기서 monogenes vios 는 혼자 아버지로 부터 발생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The Son was eternally generated by God the Father.

여기서 출생이라는 말을 안쓰고 발생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인간 세계의 출생과 구별하여, 하나님으로 부터 발생한의 뜻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 :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sup>18</sup>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the only begotten Son,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th declared *him*. **John 1:18 (KJV)**

### 3. 영생(Eternal Life)

영생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요한 1서 1:2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런데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생을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주었습니다(요 5 :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다(요일 5: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 5: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1 :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영생의 정의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4.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 의롭게 된다는 것인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어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예수님은 사람이며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역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믿음을 사도바울은 로마서 3:21 에서 율법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 :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의롭게 되는 믿음은 예수님의 사역에만 초점을 맞춘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을 하신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수 밖에 없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위에 보내시어 사람들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신 의를 전가하셔서 의롭다고 하신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없이 사역에만 초점을 맞추면, 다시 말하면 율법을 범한 죄를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만 하면, 예수님의 대리적 순종이 구원을 위한 적극적 조건으로 등장하게 되고 십자가는 소극적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의 대리적 순종이 구원의 적극적 조건이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속사의 전면에 적극적 조건으로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1 : 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이것이 십자가를 말합니다. 대리적 순종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속사의 전면에 적극적 조건으로 등장합니다. 또 한구절을 찾아 보십시오.

로마서 5 :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구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속사의 전면에 적극적 조건으로 나타납니다.

또

로마서 5 : 8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의 이 말은 예수님의 대리적 순종이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고, 대리적 순종이 구속을 위한 적극적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믿음이 구속을 위한 적극적이며 절대적 조건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이 로마서 3:22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를 말합니다.

로마서 3 :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또 요한 복음 3:16 에 있는 저를 믿는 자를 말하고,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 :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 : 18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